

知的 廉直의 길

李 光 周

(全州大 社會教育科)

지난 해 민주화 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종래의 교수 재임용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얼마 전에는 정년 보장 임용 제도(tenure system)의 도입이 당국에 의해 제기되다가 그것도 또한 대학 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된 듯하다.

종래의 교수 재임용 제도는 1975년 7월 그것이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惡法으로서 대학 내의 비판의 소리가 높았거니와 그 문제점으로서 특히 그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의 결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異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교수 임용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히 전제되어야 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의 부재가 지적되어 왔다.

유신 체제가 그 극성을 부렸던 시기에 대학 사회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전적으로 官廳에 의해 제정된 그 제도는 많은 이들의 의혹 그대로 체제 비판적 교수들을 위협하고 대학으로부터 추방하는 체제 옹호의 祕策으로서 적지않이 기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여러 私學 재단에 의해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어 왔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악법의 검증과 더불어 교수 신분의 본질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자유 및 자율성의 핵심은 의심의 여지없이 교수와 학생의, 특히 교수의 자유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대학의 본질이 학문 연구와 교육에 있으며 연구와 교육의 주체는 바로 교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분 보장을 토대로 한 교수의 자유는 곧바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발전에 직결되며 대학의 존재 이유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교수의 신분 보장이 바로 그대로 대학의 본질을 이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신분이 대학 최고의 관리 기관인 국가의 교육행정 당국이나 私學 法人인 재단 이사회의 관리 하에 속해 있음을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문교 당국이나 이사회는 교수들을 '마음대로 고용하고 내쫓는 생각(the hire and fire philosophy)'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함정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정년 보장 임용 제도에도 도사리고 있으니 그 제도적 自救策은 무엇인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수직의 전문직능상의 '적격성 결여'가 공정한 심사와 수속을 거쳐 시인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교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심사와 수속이 국·사립을 막론하여 전적으

로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대표 기구에 의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교수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당위성은 교수의 직분이 그의 전문 지식의 능력과 知的 성실성에 있으므로 교수직의 적격성 여부는 이 점에 국한되어야 함은 물론 그 능력과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당국이나 이사회가 아니라 유일하게 교수 집단이기 때문이다. 관리자(문교당국 혹은 이사회)와 피고용인(교수)간의 이질성이 대학만큼 큰 조적도 없다. 대학 관리자는 그의 여러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고 배제함으로써 교수들의 자주적 정계권을 포함한 교원의 확립을 통해 대학의 자유와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대학의 본질에 비추어 교수 신분의 보장은 필연적인 당위성으로서 요청되거나 최고 관리 기구로부터의 침해 배제하더라도 또다른 측면에서 교수 신분을 위협하는 것은 당파적인 이데올로기의 존재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바람은 특히 대학 캠퍼스에 거세게 불어 닥친다. 대학 최고 관리 기구의 체제 지향성에 대해 교수 사회의 속성은 대체로 체제 비판적이다. 그러므로 교수 신분은 긴장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근대 학문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으로 인하여 학문에 종사하는 교수들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을 논의하고 새롭게 창출해 내는 대학을 닥스 베버는 ‘諸神들의 투기장’이라고 표현하였거니와 아담 스미드의 이론과 함께 마르크스가 칸트와 더불어 프로이트와 마르크제가 논의되는 대학은 흡사 여러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보편적인 知的 창출을 모토로 하는 대학의 본질과 부응한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필경 당파적이기 마련이며 인간을 행등의 세계에로 탈바꿈시킨다.

우리들은 베를린대학에 근대적인 ‘교수의 자유’ 이념을 확립함으로써 독일 학문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 놓은 훈볼트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인은 현실의 세계와 유리되어 인식하는 인간이 될 수 없으며, 훈볼트가 교수의 제1의 덕목으로 내세운 ‘고독’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雜沓처럼 캠퍼스의 안팎에서 우글거리는 갖가지 이데올로기의 당파성은 교수와 관리 기구, 교수와 사회 그리고 교수와 학생간에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그러므로 분명히 교수 신분을 위협하는 ‘내면의 敵’이다. 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베버에 의해 강조된 ‘價値의 자유’의 개념을 상기한다. 그에 의하면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단 위에서 듣는 사람을 향해 무엇인가 어떤 입장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에언자나 선동자는 대학의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 “교사는 어떠한 이념이나 주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베버는 되풀이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지 사실에만 관련된 知的 ‘객관성’을 결코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는 ‘주관과 객관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知的 廉直을 찾았던 것이다. 어떠한 편견도 없이 끊임없이 知的 창조를 지향하는 이 지적 열직성이야말로 이데올로기의 당파성으로부터 교적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의 신분을 언제나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교수직의 최대의 덕목이 비단 교수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촉진되는 것이 아닌 대학 공동체의 자율성과 시민적 자유와 양식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만 배양될 수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